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4.22. ~ 4.28.)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레 26 - 민 5	시 33 - 39
	개인	전 9 - 아 2	딤후 1 - 히 3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다섯 오직(4) - 오직 그리스도(3)		
	<p>사도행전 4장 12절</p> <p>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p> <p>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p> <p>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p>		



디도서 1장 /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개요**

1-4 인사

5-16 감독의 직분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합니다(1-4절). 디도는 그레데에 남아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았는데, 그중 하나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5-9절). 장로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의 입을 막고 교회와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10-16절).

디도서에 나타난 장로의 자격요건과 해야 할 일은 당시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레데인들을 가리켜 회자되는 말이 있었는데,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였습니다(12절). 그런 사회 분위기에 세워진 교회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 가운데 교회를 위한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은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며, 선한 일을 사모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목록은 그들에게만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람들이며, 우리가 이를 위해 간구해야 할 기도제목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 교회를 세우는 마음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선한 일을 사모하여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4월 23일(화)

레27

시34

전10

딤후2

디도서 2장 / 바른 교훈을 따르는 말

개요

1-10 바른 교훈

11-15 선한 일

교회의 지도자인 디도는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해야 했습니다(1절). 또한 교회 구성원들 또한 그래야 했습니다. 늙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와 남자 모두 바른 말을 하게 해야 했습니다(2-10절). 그들의 진실한 말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10절). 이러한 모습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11-15절).

신자의 삶은 바보같이 사는 삶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거짓 말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특별히 허물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바른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시는데, 우리를 양육하심으로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십니다(12절). 그렇기에 신자의 삶은 바보같지만, 아름다우며 능동적인 삶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언어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 믿을 만한 사람, 주님 나라 백성다운 사람으로 말하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참된 말을 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4월 24일(수)

민1	시35	전11	딤후3
----	-----	-----	-----

디도서 3장 /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

개요

1-11 바른 삶

12-15 부탁과 끝 인사

앞서 바울이 바른 말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는 바른 삶에 대해 권면합니다. 먼저 권하는 바는 질서에 순종하는 삶입니다(1절). 다음으로 비방하고 다투지 않는 삶입니다(2절). 그 바탕에는 우리 이전 모습에 대한 이해와 반성, 그리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3,4절). 모든 신자는 자신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 받았습니다(5-7절). 신자의 선한 행실의 기초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8절). 신자는 무익하고 헛된 것을 피하고, 이단을 멀리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9-11절).

바른 삶은 옳음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되, 그 방식에 있어서 비방과 다툼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자의 사명은 내용으로는 저항하나, 방식으로는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비방하고 다투는 삶에서 나온 사람들이니 그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8절). 지금 내 지성과 지위, 그리고 모든 것을 사용하여 지금 속 시원하게 내 옳음을 드러내는 방식은 아름답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온유한 주님의 본을 따라 비방과 다툼이 아닌 순종과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4월 25일(목)

민2	시36	전12	문1
----	-----	-----	----

빌레몬서 1장 / 용서

개요

- 1-7 인사
- 8-22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
- 23-25 끝 인사

바울은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빌레몬에게 편지합니다(1-7절).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합니다(8-10절). 오네시모는 도망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 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고, 회심하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손에 이 편지를 들려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바울은 강요하지 않고, 권위로 명령하지 않으며,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법과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말합니다. 오네시모의 모든 잘못을 바울 앞으로 계산하고, 형제와 같이 대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11-22절).

복음은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담을 허물고 깨어진 관 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돌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용기 있는 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는 아 직 빌레몬이 자신을 용서할지도 모른 채 그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이 모든 것을 바꾸었으며, 주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힘입어 오네시모 는 빌레몬에게 갑니다. 용서만큼 복음을 잘 드러내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용서로 용서하는 삶이야 말로 복음적인 삶이 아닐까요? 용서 는 크고 작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마주치는 책임인지 모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용서하는 고귀한 삶으로 부르신 줄 압니다. 그저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 리를 아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4월 26일(금)

민3

시37

아1

히1

히브리서 1장 / 그 아들

개요

1-3 그 아들에 관하여

4-15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1-3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즉 하나님이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구원자이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만물의 통치자입니다(3절). 그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며, 오히려 천사들은 그분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4-14절).

히브리서 1장이 말하는 이분이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정과 기대를 불러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리스도에 비할 바도 못 되며,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계시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행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가장 높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높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구원이 주님께 있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히브리서 2장 / 큰 구원이 주는 힘과 위로**개요**

1-4 큰 구원

5-18 구원의 창시자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서술한 후에 "그러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권면을 줍니다(1절).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큰 구원"이기 때문입니다(2-4절). 그분은 잠시 낮은 자리로 오시어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실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5-10절). 놀랍게도 우리와 그리스도는 한 근원에서 나왔으며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습니다(11,12절).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13-17절).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구원자이십니다(18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큰 구원을 알면 알수록, 그 사실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은 우리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 것임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감정에 휩쓸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엔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성경 해석으로 혼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의지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시며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을 든든히 지키고 서 있는 버팀목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이 이루신 큰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안식 누리며 사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3장 /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개요**

1-6 모세와 예수

7-19 믿음으로 얻는 안식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1절) 그를 모세에 빗대어 설명합니다(2절). 그러나 그는 모세보다 더욱 나은 분입니다(3절).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종이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습니다(4-6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은혜의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6-14절). 모세 때 구약의 백성들은 마음을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15-19절).

모세는 종이고, 그리스도는 아들입니다. 이제 아들이 왔으므로 아들을 따라야 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 간혹 예고편을 계속해서 돌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편이 나왔는데 예고편에 폭 빠져 그 부분만 반복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의 방식과 경험과 감정으로 돌아가려는 경우가 그와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된 그 날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근원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듯이, 주로 믿고 사는 삶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안에 주어질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